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표단, 중국안장협회 방문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을 단장으로 한 설비건설업계 대표단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안장협회를 방문하여, 한·중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날 회담에 앞서 가진 대표단 환영식에서 중국안장협회 우즈나이(吳之乃) 회장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표단의 중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한·중 양국 협회는 지난 세기 말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로 상호 방문을 실시하며 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면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정승일 명예회장은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서 반도체 공사 건설에 투자하였으며, 중국 기계공업건설 총공사 왕치안 총경리는 한국을 방문해, 그들이 시공하는 공사를 시찰하는 등 양국 협회의 교리에 따라 한중 양국 기업간의 관계가 날로 돈독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은 「중국안장협회 우즈나 이 회장님을 비롯한 중국 설비업계 대표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설비건설협회 대표단을 초청해주시고, 이렇듯 진심으로 환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협회는 지난해 중국 대표단의 서울 방문을 기대했으나 중국 대표단의 바쁜 일정 때문에 무산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2년만의 조우라서 그런지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 설비건설업계는 2003년 11월 3일 체결한 제5차 합의비망록을 기초로 하여 쌍방의 긴밀한 협력과 다방면의 토론을 거쳐 제6차 합의비망록을 체결하였다.

회담에 앞서 박종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국은 향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그 위상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도 중국의 눈부신 성장을 피부로 느낄 만큼 달라진 것을 실감하였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국가 차원의



△제6차 합의비망록을 체결한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左側)과 중국안장협회 우지나이 회장(右側)



△북경 국가대극원(국립예술극장) 시공현장을 방문한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표단

협력으로 향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양국 협회가 첨병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어서 박종학 회장은 「지난 99년 8월에 양국 설비건설업 계간 친선 유대와 제반협력증진을 위하여 합의비망록을 교환한 후, 그 동안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부산-상해시, 대구-요녕성, 광주·전남-중경시, 인천-절강성, 경기-안휘성, 경북-허서성 등 한·중 지방협회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양국 지방 설비업계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친목도모와 함께 발전을 꾀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도 지난 2003년도처럼 양국 협회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함께 양국 설비업계의 협력증진에 대한 초석을 다짐은 물론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안장협회 우지나이 회장은 「한·중 양 협회의 6차 회담으로서, 양측은 다년간 상당한 신규 협력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매년 상호 방문이라는 전통을 통해 서로 간의 우정과 협력을 날로 발전시켜왔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한·중 양국 협회의 공동 관심사와 합의 의향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학 회장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훌륭한 오찬을 베풀어 준 중국안장협회의 환영에 감사하기 위한 답례만찬을 마련하면서 「우리 한국 대표단은 중국에서의 환대를 잊지 않으며, 내년에 중국 대표단의 서울 방문이 꼭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안장협회 우지나이 회장도 답변을 통해 「내년에 중국안장협회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제6차 합의비망록

韓·中 양국 협회는 2003년 11월 3일 체결한 제5차 합의비망록을 기초로 하여 쌍방의 긴밀한 협력과 다방면의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韓·中 양국 협회는 설비건설분야 시공 PROJECT 수행에 필요한 입찰, 계약, 보증, 인·허가, 하도급 관련사항 등 양국 건설관련 정보교류 추진을 위해 쌍방이 적극적으로 편의와 협력을 제공한다.

2. 韓·中 양국 협회는 설비건설관련 공사수주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하여 양국 시장 확대 및 제3국의 건설 PROJECT에 공동투자 또는 합작수행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3. 韓·中 양국 협회는 설비건설관련 기술교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공유하고 전문 및 기능인력과 장비·자재분야의 정보를 교환한다.
4. 韓·中 양국 협회는 자매관계를 맺은 양국 지부 간 상호방

문으로 지부 간 체결된 협의서의 이행에 협력하고 필요시 양국 지부 간 자매결연을 확대하며 소속 회원사 간의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5.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중국안장협회의 열렬한 환대와 배려에 감사를 표하면서, 중국안장협회가 2006년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안장협회는 이에 동의하였고, 방문 일정은 쌍방이 별도로 합의한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표단

직 위	성 명	회 사 명	직 위	성 명	회 사 명
회장	박종학	(주)동산테크	경기도 회장	김영완	(주)광산공영
부회장	강석대	우양기건(주)	강원도 회장	강현우	(합)천우
부회장	조기호	환경이엔지(주)	충북도 회장	장순경	영광기업(주)
상임부회장	홍창기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 회장	정성조	(유)제일공영
감사	김광남	영풍진흥기업(주)	경북도 회장	윤광수	(주)해광공영
대구시 회장	이한수	미강기업(주)	제주도 회장	오태권	(주)거운
광주·전남도 회장	정석우	(주)전일	기획관리실 부장	문석주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 회장	성열구	(주)대청엔지니어링			

☐ 중국안장협회 대표단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단 장 우즈나이(오지내 蕪之懷)	중국안장협회 회장	단 원 우샤오샤(오소사 蕪冰瀆)	중국안장협회 과학기술 위원회 부주임
부단장 차이요카이(채요개 蔡菱葦)	중국안장협회 상무부회장	단 원 구신젠(고심건 龔嶽璽)	중국안장협회 종합관리부 주임
단 원 평이(풍의 馮)	중국안장협회 부회장 북경시 설비설치공사 총경리	단 원 청통칭(정동경 程鹿儂)	중국안장협회 품질안전부 주임
단 원 류페이밍(유배명 柳飛鳴)	중국안장협회 부회장 중국 경공건설공정 총공사 총경리	단 원 연젠(엄건 嚴掄)	중국안장협회 과학기술보급부 주임
단 원 왕즈안(왕치안 왕治安)	중국 기계공업 건설총공사 총경리	단 원 루젠잉(노건영 魯掄嶺)	중국안장협회 교육자문부 부주임
단 원 동위슈(동옥서 董濶舒)	중국 핵공업 제23건설공사 당위원회 서기	단 원 난구이지(남계지 南冀芝)	중국안장협회 과학기술보급부 주임
단 원 스샤오난(석소남 石冰箒)	북경 주총안장공사 부총경리	단 원 왕후이링(왕혜령 王慧軒)	중국안장협회 종합관리부 주임
단 원 우안관(오안관 蕪安管)	강소 양안 기전안장공사 부총경리	단 원 장원센(장문현 張諄顯)	중국안장협회 업계 발전부 주임
단 원 자오아이란(조애란 趙楷茜)	중국안장협회 부비서실장	비서 실장	

서울시회, 169차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10월 27일 제16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원가반영 추진 △제2차 건축설비 CAD교육 실시 △제16차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서류 검토 △불량기자재 신고 접수창구 설치 운영 등 10월 추진업무를 보고하였다.

한편 서울시회가 건축설비 CAD교육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현장실무 도움은 조사응답자의 7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응답자 중 CAD교육 이외 다른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일일 교육시간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 중급 과정에서 교육기간에 비하여 과정의 진행 속도와 난이도가 높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서울시회는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원가반영에 있어서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용 산출방법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

시회는 본회와 협의하여 2006년도 표준품셈 개정항목 대상으로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따른 구체적인 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년도 12월경에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원가계산 자료를 조사·취합한 후 표준품셈 위탁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회는 11월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1월 9일 설비건설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서울시회 회장단 및 「분리발주 수주회원사 간담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리발주 수주회원사 개최하여 분리발주 수주업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분리발주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분리발주공사의 성실시공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회원사 서비스의 향상,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신규사업발굴을 위한 회원사 설문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회, 2005년도 제5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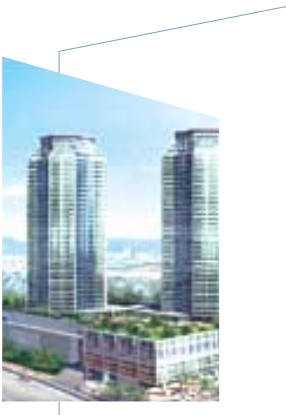


서울시회(회장 강석대)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임종태)는 지난 10월 21일 (주)김앤디(대표 김종성)가 시공중인 인천논현14블록 옥외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사금액 1,879,915,000원 규모의 인천논현 현장은 지난 1월 25일 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2006년 5월 7일 완공을 목표로 10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이날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본 후 “건축공사 3개 공구가 참여하는 단지의 옥외기계설비공사로서 건축, 토목, 전기 등 타공사와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공사와 연계한 공정관리가 양호하고 기계실, 공동구 배관배열 상태 및 용접 및 방청도장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위험물 시설의 안전대책 등 안전관리가 양호하고 공사 착수 14일전 시공계획, 시공상세도 작성 승인 후 시공 견본 시공 및 시공확인 철저로 품질상태가 양호하다고 점검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돋보였고, 감독관의 공종별 시공 분쟁시 적극적인 조정과 업무협조로 기계설비공사의 원활한 공사수행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회, 대구지역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지역설비건설업체 활용 건의



대 한설비건설협회 대구시회 이한수 회장은 지난 10월 26일 김범일 대구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하여 건설관련국장, 건설관련 기관장, 구·군 도시건설국장,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 삼성물산(주) 등 8개 수도권 대형 일반건설업체 임원 및 건설관련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구지역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대구지역 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에 지역설비 건설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한수 회장은 「현재 대구지역 설비건설업계는 공사물량 부족으로 기업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아파트 등 지역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 대부분을 서울 등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나 대구지역 설비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는 비율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대구지역에도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설비건설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지역 내에서 외지 대형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설비공사는 대구지역 설비건설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과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 이한수 회장은 8개 외지 대형건설업체 임원들에게 「지역 설비건설업체가 협력업체 등록시 요건을 완화해주고, 지역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 설비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대형 건설업체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